

“잘 놀아야 잘 자란다”, 놀이 중심 표준보육과정 개정¹⁾

이미화 선임연구원

보건복지부는 2020년 4월 9일,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를 개정하여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를 하였다. 이번 2020 개정 표준보육과정은 이미 개정된 「3~5세 누리과정」인 2019 개정 누리과정과 같은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고시된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교사주도적 보육에서 벗어나 영유아 중심, 놀이 및 일상생활 중심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고시 후 어린이집 실제 적용에 이르는 동안 보건복지부는 「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돕기 위해,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보급, 관계자 교육·연수 등도 준비하고 있다. 표준보육과정을 통해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으로 자라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1. 추진 배경

보건복지부는 2017년 12월,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에서,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 하는 사회’라는 비전을 설정하였으며, 국정과제인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4개 분야, 즉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체계 개편, 보육서비스의 품질 향상, 부모 양육지원 확대를 제시하였다. 영유아의 교육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여 누리과정의 개편이 진행될 계획(‘18년~ 교육부·복지부)으로 0~2세 표준보육과정도 영아의 놀 권리 및 균형적 발달을 고려하여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2019년 시행 계획에서는 누리

과정 개정에 따라 영유아 특성에 맞춰 표준보육과정을 개선하고자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 개정과 해설서 개발 등을 계획하였다.

2019년 말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대상 보육과정 중 3~5세를 위한 보육과정(누리과정)은 이미 개정되었고, 0~2세는 어린이집에만 해당되므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0~5세 영유아의 연속적 경험과 연령간 발달적 연계를 위하여 누리과정 개정 방향 및 내용을 고려하여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중 0~1세 및 2세 보육과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2019년 10월부터 누리과정 및 표준보육과정 연구진을 중심으로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0~2세) 개정 연구’를 통해 0-1세 보육

1)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한국보육진흥원 수탁과제인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0~2세) 개정 연구(이미화·김은영·강은진·김희수·이완정·유주연·김혜금·신윤승·정선아·김유미·성지현·최명희·최혜영·배선영·권해진·안소영, 2019)」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과정과 2세 보육과정의 영역별 내용을 개정하였고, 0~2세 보육과정과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으로 이미 개정됨)을 포괄하는 총론의 일부를 개정하여, 2020년 4월 9일에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고시하였다.²⁾

2. 표준보육과정 개정 경과

가. 표준보육과정 연혁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보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보육목표와 영유아의 발달과 개인차를 고려하여 이들이 경험하게 될 보편적인 보육내용을 제시한다.³⁾ 보육과정의 목적은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 영유아가 심신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⁴⁾

우리나라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 보육의 법적 토대를 구축하였고, 2004년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29조에 의거하여 표준보육과정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이후 2005년 여성가족부가 「표준보육과정」을 연구, 개발하고 2006년 11월 10일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0조 관련 표준보육과정령을 개정하였다. 이에 2007년 1월 3일 최초의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 보육내용」⁵⁾를 고시하기에 이르렀다.

「표준보육과정」이 고시됨에 따라 2007년부터 2세미만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 3-5세 보육과정이 보육현장에 적용되어 왔다. 이후 점차

급변하는 사회와 보육 여건의 변화에 따라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부분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2010년 6월 「표준보육과정 개정안 연구」가 시작되었고, 2011년 3월 공청회를 거쳐 고시를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2011년 5월 2일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이원화로 운영되던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표준보육과정」 개정안 고시는 잠시 유보되었고, 우선 최초의 어린이집, 유치원 공통과정인 「5세 누리과정」을 제정하여 2011년 9월에 고시하게 되었다. 2011년에 개정 고시를 앞두고 있던 「표준보육과정」에서 5세 유아를 위한 보육내용을 제외시키되 「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재 수정한 후 0-4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제2차 표준보육과정」을 2012년 2월에 고시하였다.

「5세 누리과정」제정에 이어서, 2013년부터 3-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한다는 도입 계획이 발표되었다. 2012년 3월부터 「5세 누리과정」과 연계하여 「3-4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개발되어 2012년 7월에 고시되었고 동시에 기존의 「5세 누리과정」이 개정되었다⁶⁾.

어린이집 0-5세 영유아의 연속적 경험과 연령간 발달적 연계를 위해서 「제2차 표준보육과정」 중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고려하여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을 개정하였다. 이에 2013년 1월에 누리과정을 포함하여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⁷⁾을 고시하였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7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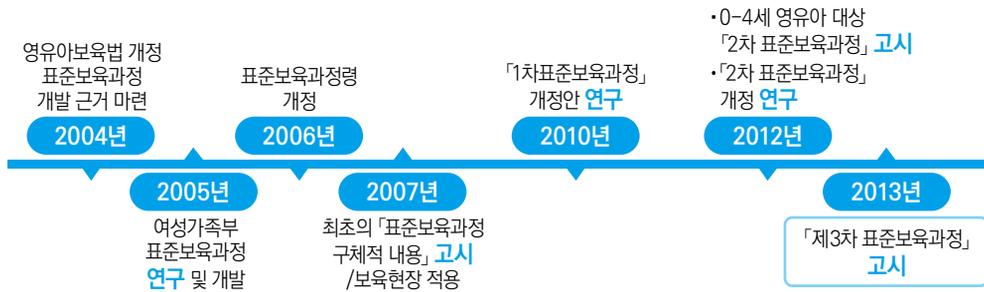
3) 이미화 외(2013).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보건복지부

4) 보건복지부(2017).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 4

5) 여성가족부 고시 제2007-1호

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82호

7)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3-8호



나. 누리과정 연혁

누리과정은 2011년 정부가 취학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도입한 비영리 지원 제도인 동시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5세 유아에게 공히 적용되는 교육과정이며 보육과정이다. 2011년 5월 정부는 「만 5세 공통과정」 제도를 도입하여 같은 해 7월 「만 5세 누리과정」을 고시하였다. 누리과정은 곧 3~4세까지 확대·적용되었으며, 2012년 7월에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의 3~5세 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으로 기능해 왔다.

누리과정은 생애 초기의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고, 3~5세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한 단계 향상시켰으며, 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 등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누리과

정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실행되면서 교육과정으로서의 체제를 갖추지 못했으며, 연령별로 교육내용을 제시하다보니 내용이 너무 많아 현장에서 실행하기에 부담이 되었고, 교사들이 고시문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기 보다는 교사용지도서의 활동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현장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사라지고 획일화되었다는 지적을 받았다.⁸⁾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부는 2018년 ‘누리과정 정책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2019년 5월 「2019 개정 누리과정(안)」 공청회가 있었고, 교육과정심의회와 행정예고를 거쳐 2019년 7월 24일 「2019 개정 누리과정」이 고시되었다.



8) 김은영·임부연 외(2019). 누리과정 개정 정책 연구. 교육부·충청남도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3. 표준보육과정의 개정 특성 및 내용

가. 누리과정 개정 특성

교육부는 2017년 12월 7일 「유아교육 혁신 방안」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근거하여 발표하였다. 「유아교육 혁신 방안」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교육문화 혁신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교실혁명을 통한 유아 중심의 교육문화 조성, 교육공동체와 함께 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유아교육 혁신을 통한 행정시스템 구축을 추진과제로 한다.

누리과정의 개정 근거가 된 내용은 ‘교실혁명을 통한 유아중심의 교육문화 조성’ 과제 중 ‘유아가 중심이 되는 교육패러다임 전환’이다. 여기에 ‘유아가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제시되며, 놀이중심, 유아중심의 누리과정 혁신 방향으로 개별 유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내용 구성, 유아의 자유놀이 권장 및 관찰과 기록 등 유아와의 상호작용 강조, 현장자율성 존중을 위해 세부내용을 내용과 통합하여 축소하였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이상의 국정 방향을 충실히 반영하여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사의 자율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개정되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개정 특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1) 교육과정의 구성체계를 확립하였다.
- 2) 누리과정의 성격을 ‘공통의 교육과정’으로 명시하였다.
- 3) 기존의 구성체계를 유지하고 5개 영역의 내용을 간략화하였다.

- 4) 유아중심, 놀이중심을 추구하였다.
- 5) 누리과정 실행력과 현장의 자율성을 강조하였다.
- 6) 평가를 간략화하였다.

나. 표준보육과정 개정 단계 및 특성

표준보육과정 개정의 1단계는 2019년 개정 누리과정으로, 3~5 보육과정(누리과정)의 총론과 각론 개정이 이루어졌다. 2단계에서는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개정하여 0~1세와 2세 보육과정 개정 및 0~5세 총론의 일부 용어(영유아, 표준보육과정 등)를 수정하고 영아 관련 내용을 부분 보완하여 개정하였다.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개정 특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1) 총론은 누리과정 개정 방향과 취지 수용하되 보육의 정체성 유지, 영유아보육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 2) 영역별 내용은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토대로 영아보육의 특성 반영하였다.
- 3) 기존의 연령 체계 유지하여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으로 제시하였다.
- 4) 구성체계를 조정하여 영역, 내용범주, 내용체계를 유지하고, 0~1세 4수준, 2세 2수준의 세부내용을 내용과 통합하였다.
- 5) 기존의 6개 영역을 유지하고 내용을 간략화하였다.
- 6) 영유아 중심, 놀이 중심을 추구하였다.
- 7) 영유아 기본 권리의 개별 보장을 중시하여 영유아는 개별적인 특성을 지닌 고유한 존재로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4. 표준보육과정의 개정 내용

가. 구성체계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보육과정으로 체계를 갖추기 위해 총론 부분에 표준보육과정의 성격을 신설하고, 표준보육과정의 구성 방향 내에 추구하는 인간상과 0~2세 보육과정과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의 목적과 목표, 구성의 중점을 기술하였다. 또한 각론에서는 0~1세와 2세, 그리고 3~5세 영역별 목표 및 내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나. 성격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서 신설된 성격에 표준보육과정은 0~5세 영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으로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으로 구성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5가지 특성을 개정 누리과정과 동일하며, 보육관련 용어(영유아, 부모 등)로만 수정하였다.

다. 총론

1) 표준보육과정의 구성 방향

가) 추구하는 인간상

개정 누리과정과 동일하게 추구하는 인간상을 변경하였으며, 이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과 연계되었다.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은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고,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교양있는 사람’은 영유아 수준에서 ‘감성이 있는 사람’으로 기술하

였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없는 ‘건강한 사람’은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되는 영유아기에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것이 제일 중요하여 추가하였다.

나) 목적과 목표

표준보육과정의 목적에 ‘놀이를 통해’를 기술함으로써 놀이를 강조하고, 기존에 구성 방향에서 기술했던 ‘바른 인성’을 목적 수준으로 제시하였다. 기존의 목표 진술과 차이가 나는 점은 기존 표준보육과정이 5개 영역의 목표를 기술한 것과 달리, 개정 표준보육과정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과 연계된 목표를 진술하고 있다. 이는 표준보육과정의 목표가 5개 영역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표준보육과정의 목표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추구하는 인간상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0~1세와 2세를 세분하지 않고 0~2세 보육과정의 목표와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의 목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다) 구성의 중점

구성의 중점에서는 종일보육에서 영유아의 기본적인 권리가 개별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영유아는 개별적인 특성을 지닌 고유한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기존의 표준보육과정의 기본 전제의 취지를 반영하였다. ‘0~5세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영유아가 처한 상황에 의해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구성의 중점은 표준보육과정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특별히 교사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다항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반영하여 구성한다’는 것은 교사가 표준보육과정을 운영할 때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표준보육과정에 이미 이러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표준보육과정에서 '만 0~5세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구성' 하던 것에서 '0~5세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바른 인성은 목적 수준으로, 자율성과 창의성은 성격으로 이동하여 기술하였다.

2) 표준보육과정의 운영

가) 편성·운영

기존의 표준보육과정에서 구분하여 제시했던 편성과 운영을 함께 기술하였다. 이는 실제로 표준보육과정을 실행할 때 구분하여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존의 표준보육과정에서 '연간, 월간, 일일 계획'을 명시했던 것을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으로 기술함으로써 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나) 교수·학습

기존의 표준보육과정에서 강조하던 영유아의 경험과 놀이 중심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보육 상황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개별 영유아의 '의사표현 존중', '민감한 반응'을 반영하였다. 교사는 영유아가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하고, 영유아가 놀이하면서 배우도록 지원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영아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도 일부 포함하였다.

다) 평가

기존의 표준보육과정은 표준보육과정의 운영 평가와 영유아평가를 별도로 기술하고, 그 내용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기술했던 것에서 개정 표준보육과정은 평가의 목적, 대상, 방법, 활용으

로 나누어 간략하게 기술함으로써 현장의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라. 각론(0~1세 및 2세 영역별 목표 및 내용)

1) 기본생활

기본생활영역은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하고 생활습관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기존 표준보육과정의 목표를 최대한 반영하였고, 2세의 경우, 생활습관의 기초를 마련한다에서 생활습관의 기초를 형성한다로 변경하였다. 연령별 수준을 고려하여 난이도를 조정하였는데 0~1세 목표 → 2세 목표 → 3~5세 목표를 염두에 두고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술하였다. 내용범주는 기존의 표준보육과정과 동일하게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의 2개 내용범주를 유지하였고,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의 내용범주와도 동일하였다. 내용은 영아가 알거나 배워야 하는 내용보다는 가능한 영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서술하였다. 예를 들어, '하루 일과를 편안하게 경험한다',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고 생활한다', '위험하다는 말에 주의한다' 등으로 기술하였다.

2) 신체운동

신체운동영역은 감각으로 탐색하고, 감각을 활용하고 신체운동을 즐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의 목표를 참고해서 연령별 수준을 고려하여 난이도를 조정하였다. 내용범주는 기존의 3개 내용범주에서 2개 내용범주로 축소 조정하였다. 기존의 표준보육과정의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는 유지하고, '신체조절과 기본 운동하기'와 '신체활동에 참여하기'를 '신체 활동하기'로 대강화하였다. 내용은 영아가

신체발달과 개인차를 반영하되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과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기술하였다.

3) 의사소통

의사소통영역은 의사소통능력과 상상력의 기초를 형성하고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의 목표를 참고해서 연령별 수준을 고려하여 난이도를 조정하였다. 기존의 표준보육과정의 4개 내용범주(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에서 3개 내용범주(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에 관심가지기, 책과 이야기 즐기기)로 축소 조정하였다. 내용은 영유아가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관계를 맺는 적극적인 의사소통자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며 의사소통의 즐거움을 느끼고, 상상하는 경험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4) 사회관계

사회관계영역은 나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더불어 생활하는 경험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의 목표를 참고해서 연령별 수준을 고려하여 난이도를 조정하였다. 기존의 표준보육과정의 3개 내용범주에서 2개 내용범주로 축소 조정하여 '나'와 관련된 내용은 '나를 알고 존중하기'로, 가족을 비롯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더불어 생활하기'로 통합하여 기술하였다.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 표현에 맞추어 '나'와 '자신'의 용어를 '나'로 통일하였다. 내용은 기존 표준보육과정의 '자신이 속한 집단 알기'와 '사회적 가치 알기'를 '반에서 편안하게 지낸다'로 통합하였다. 어린이집에서 즐겁고 편안하게 생활하기 위한 기본 내용을 영아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5) 예술경험

예술경험영역은 아름다움을 느끼고 경험하며, 즐기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의 목표를 참고해서 연령별 수준을 고려하여 난이도를 조정하였다. 기존 표준보육과정의 3개 내용범주에서 2개 내용범주로 축소 조정하여 '아름다움 찾아보기'와 '예술 감상하기' 범주를 통합하여 '아름다움 찾아보기'로 서술하였다. 이는 0~1세와 2세가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을 느끼며 감상하는 경험이 사실상 구분되어 나타나기 어려운 부분을 고려하였다. 한편 내용을 간결하게 서술하였으며 예술 경험에서 감성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내용의 용어 서술에서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주변', '주변환경', '일상생활'을 '자연과 생활'로 기술하였다. 예술 영역의 본연의 강조점인 감성적 측면을 부각하기 위하여 기존 표준보육과정의 '호기심 가지기'와 '탐색하기' 등 표현을 자연탐구영역과 구분하여 '아름다움 느끼기' 또는 '아름다움에 관심 가지기'로 서술하였다.

6) 자연탐구

자연탐구영역은 주변 환경과 자연에 관심을 갖고 탐색하는 과정을 즐기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새로 포함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생명과 자연을 존중하는 세부 목표를 기술하였다.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의 목표를 참고해서 연령별 수준을 고려하여 난이도를 조정하였다. 내용범주에서 기존의 표준보육과정의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는 '탐구과정 즐기기'로 수학적 탐구하기와 과학적 탐구하기를 통합해서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로 기술하였다. '자연과 더불어 살기'를 하

나의 내용범주로 추가하여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과 동일하게 되었다. 자연탐구영역은 체계적인 학문적 특성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내용이 많은 편이다. 기존 표준보육과정의 '주변 사물', '주변 사물과 자연 세계'를 '주변 세계와 자연'으로 기술하여 영아가 관심을 갖는 범위를 확장하고 용어를 통일하였다. 또한 '주변 사물', '생활 주변의 자연물', '관심 있는 사물', '돌, 물, 모래 등의 자연물'을 통하여 '사물과 자연'으로 기술하였고, 추가된 내용범주인 '자연과 더불어 살기'에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와 기존의 '바람, 햇빛, 비 등'을 날씨로 통일하여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감각으로 느낀다'가 포함되었다.

5. 후속 지원 및 향후 과제

보건복지부는 3~5세 누리과정 고시 개정('19.7.24, '20.3.1 시행)에 따라, 아동의 경험과 연결, 연령 간 발달 연계, 보육 현장의 안정적 적용을 돕는 차원에서 보육과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0~2세 포함)고시도 동일한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놀이 중심, 영유아 중심, 보육 현장의 자율성 확대, 보육 수준의 적정화를 통한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자율성, 창의성 신장 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2020년 4월에 고시된 표준보육과정의 실제 적용을 위해 개정 배경을 이해하고, 총론 전체와 각론 중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의 영역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를 제작, 보급할 예정이다. 해설서는 사진을 활용하여 놀이 및 일상생활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하여 어린이집에서 0~2세를 담당하는 교사가 영역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보육교직원의 교육 및 연수등도 진행할 계획에 있다.

변화가 많은 보육 현장에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 적용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개정 누리과정의 후속 사업으로 진행된 어린이집 컨설팅 시범사업이나 집합 및 원격 연수 등처럼 개정 표준보육과정을 위한 후속사업도 차근차근 마련되어 0~2세 보육과정이 어린이집 영아반에 잘 안착되기를 기대한다.